

■ 김대중 前대통령 전남대 특강서 밝힌 '핵실험 정국'

북한 핵실험 이후 3일만에 전남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연은 그가 현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기초가 됐던 '햇볕정책의 창시자'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자신의 평생 업적 가운데 하나인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실험과 국내 보수파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실험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지만 미국의 대북 핵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북 포용정책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1일 오전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전남대 대강당에 도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환호로 환영하는 청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햇볕정책 실패 주장 해괴하다”

■ 햇볕정책 책임론 반박

김 전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해괴한 여론이 돌아다니는”면서 “북한이 햇볕정책 때문에 핵 개발했다 한 적 있느냐. 오히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경제봉쇄를 하며 북한이 살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핵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햇볕정책의 산물이라는 국내 보수층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어 “햇볕정책은 북미관계가 장애가 돼서 완전한 성공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지금까지 결과로 볼 때 남북 간에는 성공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햇볕정책의 성과로 “옛날 같으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하면 비난하는 소동이 일어났을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아주 안정돼 있다”며 남북긴장 완화를 소개했다. 또 “국제적 신용기관도 북한 핵실험이 있을

에도 한반도의 안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햇볕정책으로 1만3천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고, 130만명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으며 (우리 기업이 투자한) 개성공단에서 35만 명의 북한노동자가 일하게 될 것”이라며 햇볕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개통되면 이 철도가 압록강을 넘어 유라시아 대

륙을 관통하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될 것이며 엄청난 부와 발전을 우리나라에 가져올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강연 이후 학생들과 가진 일문 일답에서는 더욱 강도 높게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또 ‘대북 퍼주기’ 주장에 대해서는 “거대한 경제이권이 있는데 왜 우리가 손을 떼고 나와야 하는가”반문했다.

“전직 대통령 오찬서 불편하게 해서 죄송”

盧대통령 위로 전화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전직 대통령 오찬 회동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불편하게 했던 일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이날 아침 전남대학교 특별강연자 광주를 방문한 김 전 대통령의 숙소로 전화를 건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전남 청와대에서 가진 전직 대통령 오찬에 김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한 뒤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 전직 대통령들 사이에 논쟁이 오간 것 처럼 비취진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남대(총장 강경제)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해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민주 인권과 평화에 호응신 등의 가치를 실천해온 점 등을 높이 평가해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황대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10·25 재보선 열전 돌입

등록 마감~전남 3곳 평균 4대1

10·25 재·보궐선거 후보들이 이틀간 후보등록을 마치고 법정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부터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후보등록 마감 결과 전남·진도 국회의원과 화순군수, 신안군수 등 전남지역 3개 재·보선 선거구에는 모두 12명이 등록,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남·진도에는 열린우리당 박양수 전 국회의원, 화순에는 한나라당 임근욱 화순·나주당협 운영위원장, 신안에는 한나라당 김영식 전 전남도당 조직부장과 무소속 박우람 전 하남부시장 등 4명이 추가로 등록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일제히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12일부터 첫 거리유세에 나

섰다. 전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양수 열린우리당 후보는 11일 전남과 진도에서 잇따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지역발전 적임자론’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체일병 민주당 후보도 이날 오후 장상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민주당 부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최영수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는 12일 오후 1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압해면에서 첫 거리유세에 나선다.

이번 재·보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전남 지역 선거권자(10월 6일 기준)는 전체 주민수의 80.8%인 19만4천80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남은 6만8천405명, 진도는 2만9천684명, 화순은 5만6천466명, 신안은 4만248명 등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0·25 재보선 전남지역 후보

〈법례〉
▲이름 ▲나이 ▲정당 ▲직업
▲재산, 병역, 납세액, 전과, 학력, 경력 순
▲정당 약칭: 우=열린우리당, 한=한나라당, 민=민주당, 무=무소속

해남·진도 국회의원

박양수 68·우 정당인	설철호 55·한 정당인	체일병 59·민 정당인	김영식 61·무 정당인
▲11억3천만5천원 ▲병역필 ▲4천75만7천원 ▲전과 없음 ▲병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재학 ▲제16대 국회의원	▲1억7천500만원 ▲1천592만8천원 ▲전과 없음 ▲총익대 경제학과 ▲호남교육신문사 사장	▲4억9천454만4천원 ▲병역필 ▲1천496만9천원 ▲전과 없음 ▲국인대학교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차장	▲11억3천만5천원 ▲병역필 ▲4천75만7천원 ▲전과 없음 ▲병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재학 ▲제16대 국회의원

화순군수

임근욱 52·한 정당인	정완기 64·민 정당인	전원준 47·무 성인그룹 회장
3천만 원 병역미필 60만 원	5억3천 933만7천 원 병역미필 1억7천 672만 원	29억2천130만6천 원 병역미필 2천964만 7천 원

신안군수

김영식 46·한 정당인	최영수 46·민 정당인	강성만 45·무 정치인	박우람 51·무 정치인	이춘식 61·무 신안오피스 대표	최신웅 59·무 농업
6천600만 원 병역미필 5만3천 원	14억3천623만8천 원 병역미필 2천36만 5천 원	4천185만 원 병역미필 0원	4억8천266만 원 병역미필 1천61만 원	52억7천666만3천 원 병역미필 1억1천 801만6천 원	872만9천 원 병역미필 2천306만2천 원

“北 핵포기 美國 직접대화 나서야”

■ 미국 책임론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실험은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IAEA(국제원자력기구) 요원 추방, 미북 간 제네바 합의의 파기와 함께 미국의 대북 핵 정책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책임을 크게 부각시켰다.

우리 정부에서 지난 1994년 이후 미국과 북한간 주고받는 일괄 타결을 주장해왔고, 클린턴 정권은 이를 적극 수용해 거의 성공 단계까지 갔지만 부시 정권은 이를 외면하다가 오늘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악의 축’인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나 역사적 사실로 보나 정당하지 않다”며 “현재

의 사태를 해결하는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주고받는 협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한 것은 잘못됐고 단호히 비난받아야 하지만 미국도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사제재 없을 듯...北 근본적 잘못”

■ 안보리 제재와 北 책임론

김 전 대통령은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서도 “어제 전직 대통령과 모임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는 북핵 발사를 막는 데는 앞장서야 했지만 지금은 징계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없다”며 “우리 정부가 유엔과 한반도 주변국의 태도를 봐가며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의 북한 제재 수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군사적 제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미국은 전쟁할 힘이 거의 없다. 중동에 묶여있고 미국 내에서도 반대한다. 경제제재 효과도 거의 없다. 결국 남는 것은 대화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의 본질적 잘못이 크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핵 실험을 통해 북미 간의 직접대화를 하고자 하지만 그러한 바람 끝 전술로는 성공하기 힘들다”며 “미국의 거대한 핵 전력 앞에 별 성과도 얻지 못하면서 미일의 강경정책만 부추기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북미 간의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계스타·세기보청기

100% 원산지 제품
100% 품질 보증